

전남도, RE100 전력거래 지원 기반 조성한다

**재생에너지 직접거래 용역 착수
중개플랫폼·비즈니스 모델 정립
지자체 시장 활성화 지원책 마련
“미래 지역산업 발전 핵심 기반”**

전남도가 지역 기업의 재생에너지100(RE100) 이행 능력 확대를 통한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태양광에너지 전력구매계약 활성화 계획 수립에 나선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계획 수립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기업의 전력구매계약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 태양광 발전소를 기업·미래 지역 첨단산업의 재생에너지100 전력 공급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전력구매계약이란 기업 등 전기사용자

가 특정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계약이다. 전력 공급은 일반적으로 한전망을 이용한다. 도내 발전사업자는 지리적 제약 없이 전국 어디에나 공급할 수 있다.

전남도는 지난 18일 녹색에너지연구원, 한국전력거래소,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SKI E&S 등 전력구매계약 전문기관·기업 등과 함께 ‘전남도 PPA(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계약) 활성화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전남의 풍부한 태양광 에너지 자원을 미래 지역산업 발전의 핵심 기반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합리적 가격으로 재생에너지100 전력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공급할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연구용역 핵심과제로는 재생에너지 수요·공급기업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지역 기업을 위한 전력구매계약 제도 개선과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고, 맞춤형 전력구매계약 중개 플랫폼 및 비즈니스 모델을 정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력구매계약 대상이 되는 1MW를 초과하는 태양광 발전(예정)단지 4878MW 규모 860개소를 전수 조사 중이다. 발전소별 설비용량, 전력거래방식, 이용 개시 및 완료 시기, 예상 계통연계시점 등을 토대로 재생에너지100 전력 공급가능 시기, 용량 등을 예측 분석한다.

전남지역 기업이 언제, 어디에서, 얼마만큼의 재생에너지100 전력을 구매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전력구매계약

시장 정보가 전력구매계약 활성화를 위한 핵심 기반이기 때문이다.

전남의 전력구매계약 시장 정보를 토대로 시범적으로 철강, 석유화학, 조선 등 지역 주력산업 분야의 에너지 다소비 대기업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100 이행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진행하고 성공사례를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장기적으로는 해상풍력으로 글로벌 재생에너지100 기업과 첨단산업 유치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강장구전남도 에너지정책과장은 “전력구매계약 초기 단계에서 지역 기업의 재생에너지100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전력구매계약 시장 활성화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전남지역 재생에너지 자원이 미래 지역 발전을 선도하

는 든든한 동력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규제, 온실가스 감축 및 재생에너지100 대응을 위한 기업의 청정에너지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요기업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간 전력구매계약이 급증하고 있다. 글로벌 전력구매계약 규모는 2023년 46GW로, 2022년(41GW)보다 12% 성장했다.

국내에서도 산업용 전기요금에 2021년 대비 2024년 약 68.7% 올라 전력구매계약 가격경쟁력이 상승했고, 정부차원에서 전력구매계약 중개 시범사업 등을 추진 중이어서 전력구매계약이 재생에너지100 이행수단으로 가장 활성화될 전망이다.

오지현 기자 jhyun.oh@jnilbo.com

광주시, 설명절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내년 1월17일까지 민관점검반 운영

광주시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23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전통시장·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영화상영관, 여객시설 등 104개소이다. 안전점검에 대한 전문성 확보와 실효성 강화를 위해 광주시, 자치구, 민간전문가,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집중 점검한다.

최권범 기자

주요 점검사항은 △화재 대비 소화장비·방화구획, 피난시설·대피로 유지관리 상태 △전선배선 불량, 누전차단기 작동여부, 전기·기계설 등 유지관리 상태 △전기·소방·가스 등 분야별 법적기준 준수·안전성 여부 등 안전관리 실태 전반이다.

점검 결과, 단순·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즉시 시정이 어려운 사항은 시설관리주체에 설 명절 전까지 보수·보강하도록 하는 등 위험요소가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광주소방, 성탄절·연말연시 특별경계근무

예방순찰 등 재난대응체계 확립

광주소방안전본부는 성탄절(12월 24일~26일)과 연말연시(12월31일~2025년 1월2일)를 맞아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해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

이번 특별경계근무는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2897명, 소방장비 274대가 동원된다. 각종 화재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실시된다.

광주소방안전본부는 특별경계근무를 통해 △기관장 지휘선상 대기 △전 직원

비상응소태세 유지 △화재예방강화지구 등 취약지역 예방순찰 △다중이용시설 관계자 자율안전관리 지도 △소방용수·시설장비 100% 가동 유지 등 재난대응 체계를 확립한다. 특히 송년 제야 타종식이 열리는 5·18민주광장에서는 소방력을 전진 배치해 인파밀집 사고 예방에 나선다. 또 환자 발생 시 응급처치, 병원이송 등 안전사고 발생에도 대비한다.

아울러 한파·폭설 등 자연재난에 대비해 119상황근무를 강화하고 의료기관, 약국 정보, 119응급의료 안내 등 생활민원 서비스를 적극 지원한다.

최권범 기자

전남농업기술원, 유자 활용 단백질 음료 개발

에너지드링크 3종 구성

전남농업기술원이 전남의 대표 지역특화작목인 ‘유자’를 활용해 수산물 단백질과 혼합한 음료를 개발했다.

최근 소비자 소득수준 향상으로 식품 소비 패턴이 탄수화물 섭취는 줄이고 단백질 소비를 늘리는 방향으로 변화함에 따라 단백질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며 다양한 신제품이 출시되고 있다. 이 중 유자는 비타민C 함량이 높아 해외에서도 ‘K-유자=비타민C’로 인식되며 관련 제품의 수출 또한 증가하고 있다.

전남농업기술원은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 유자를 활용한 신상품 개발과 시장 개척을 위해 고흥군에 위치한 엔자임팜영농조합법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유자 단백질 음료를 개발했다.

이번에 개발된 유자 단백질 음료는 유자뿐만 아니라 비파와 녹차를 활용해 유자맛, 유자비파맛, 유자녹차맛의 에너지드링크 3종으로 구성됐다. 단백질 원료로는 천연 타우린을 함유한 굴과 단백질 함량이 높은 해삼, 홍합을 사용해 영양을 강화했다. 특히 수산물의 비린맛을 줄이는 기술을 적용해 만든 이 음료는 이달 중국 선전에서 열린 식품박람회와 충청의 하마 mini 마트 판촉행사에서도 큰 호평을 받았다.

전남농업기술원은 이번 제품의 상품화를 위해 고흥의 엔자임팜영농조합법인, 보성의 강산농원(유)농업회사법인, 완도의 다시마전복수산물여조합법인에 기술을 이전, 이달부터 본격적인 제품 생산을 시작했다. 이 제품은 K-유자를 선호하는 중국 시장 수출을 시작으로 국내 온·오프라인 시장에도 출시될 예정이다.

오지현 기자



북구, 연말연시 앞두고 제과점 위생점검

광주 북구청 보건위생과 위생관리팀 직원들이 23일 관내 한 제과점에서 연말연시를 앞두고 주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케이크와 빵류에 대해 유통기한 등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광주 북구 제공

전남도,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박차

**올해 ‘성과 나눔대회’ 성료
김 지사 “지역발전 새 동력”**

전남도가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남도는 23일 도청 대강당에서 김영록 도지사과 김태균 도의회 의장, 도의원, 군수, 사회단체장, 으뜸마을 대표·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정전남 으뜸마을 성과 나눔대회를 개최했다.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은 ‘내 마을은 내 손으로 깨끗하고 아름답게’라는 슬로건 아래 전남의 청정자원을 관리·보존하기 위해 주민 스스로 참여하고 주도하는 주민 화합과 공동체 형성 목적의 마을가꾸기 특화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으뜸마을 4년차를 맞아 단

순한 환경 정화나 경관 개선을 넘어 마을 주민 간 화합과 결속을 통해 특색있는 으뜸마을 모범사례를 쏟아내는 등 외부 전문가로부터 호평을 이끌어냈다.

이날 성과나눔대회에서는 생동감 넘치는 활동 영상 상영 및 마을 이장이 들려주는 생생한 후기가 담긴 우수사례 발표 등을 한 해 성과를 공유하고 노고를 격려했다.

우수 시군 시상에서는 각 마을의 매력과 특성을 살린 으뜸마을을 조성 중인 함평군이 대상 받았다. 곡성군과 완도군은 최우수상, 무안군과 광양시가 각각 우수상을, 해남군이 장려상을 받았다.

주민참여 확대·주민 인식 개선 등에 솔선수범한 공로를 인정받은 22개 시군별 도민 유공자 표창도 이뤄졌으며 3000여

개 으뜸마을 중 현장평가를 통해 우수 마을로 선정된 75개 마을에는 ‘우수 으뜸마을 현판’을 제공해 주민 자긍심 고취에도 나섰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의 강점인 청정자원을 잘 다듬고, 주민자치와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하는 으뜸마을 사업이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각자의 마을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청정자원을 잘 가꾸어 전남의 밝은 미래를 여는 든든한 마중물이 돼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4000여 청정전남 으뜸마을을 조성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8000여 모든 마을이 으뜸마을로 거듭나도록 매년 500만원씩 총 3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오지현 기자

광주관광공사, 산타빌리지 조성 ‘눈길’

광주관광공사가 크리스마스를 맞아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에 ‘광주 예술관광 홍보를 위한 산타빌리지’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를 통해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맞아 광주 예술관광을 홍보하고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경험

을 선사할 계획이다.

이날부터 한 달간 운영되는 산타빌리지는 예술관광 홍보부스와 함께 아가자기한 산타 마을과 화려한 조명, 다양한 포토존으로 꾸며져, 방문객들이 아름다운 분위기 속에서 크리스마스를 즐길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한다.

특히 크리스마스 당일인 25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4개의 체험 부스가 마련돼 도자 컵 만들기과 크리스마스 퍼츠 브러쉬 만들기, 크리스마스 슈링클즈 만들기, 크리스마스 트리 소원 리본 달기 등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다. 또한, 예술관광 SNS 홍보 이벤트도 함께 진행돼 기념품과 간식도 제공한다.

최권범 기자